국외출장 결과보고서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6">내 역</td></tr>
<tr><td rowspan="4">출장자</td><td>소속</td><td>해양연구본부</td><td>성명</td><td>최지연</td><td>직급</td><td>부연구위원</td></tr>
<tr><td>소속</td><td>해양연구본부</td><td>성명</td><td>김미주</td><td>직급</td><td>전문연구원</td></tr>
<tr><td>소속</td><td>해양연구본부</td><td>성명</td><td>이상혁</td><td>직급</td><td>전문연구원</td></tr>
<tr><td>소속</td><td>해양연구본부</td><td>성명</td><td>김민</td><td>직급</td><td>전문연구원</td></tr>
<tr><td>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td><td colspan="6">■ 현지조사(현장, 업무협의회)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발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td></tr>
<tr><td>관련사업
(예산항목)</td><td colspan="6">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 개최 사전 준비 용역
(수탁과제 / 최지연, 김미주, 이상혁, 김민)</td></tr>
<tr><td rowspan="5">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td><td>성명</td><td colspan="2">보유 마일리지</td><td colspan="2">활용계획</td><td>미활용 사유</td></tr>
<tr><td>최지연</td><td colspan="2"></td><td colspan="2">미활용</td><td>보너스 항공권 없음</td></tr>
<tr><td>김미주</td><td colspan="2"></td><td colspan="2">미활용</td><td>보너스 항공권 없음</td></tr>
<tr><td>이상혁</td><td colspan="2"></td><td colspan="2">미활용</td><td>보너스 항공권 없음</td></tr>
<tr><td>김민</td><td colspan="2"></td><td colspan="2">미활용</td><td>보너스 항공권 없음</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2">2024. 4. 14(일). ~ 2024. 4. 19(금).
(3박 6일)</td><td colspan="2">출장지</td><td colspan="2">아테네, 그리스</td></tr>
<tr><td rowspan="5">출장일정</td><td>일자</td><td colspan="2">방문지</td><td colspan="2">주요업무*</td><td>항공편</td></tr>
<tr><td>4.14.</td><td colspan="2">이동</td><td colspan="2">o 서울 출발</td><td>EK 323,
EK209</td></tr>
<tr><td>4.15.</td><td colspan="2">아테네, 그리스</td><td colspan="2">o 도착(두바이 경유)
o 제9차 OOC 등록</td><td></td></tr>
<tr><td>4.16.~4.17.</td><td colspan="2">아테네, 그리스</td><td colspan="2">o 제9차 OOC 본회의 참석
o 제9차 OOC 운영 및 부대행사 진행사항 조사.분석</td><td></td></tr>
<tr><td>4.18.~19</td><td colspan="2">이동</td><td colspan="2">o 아테네 출발
o 서울 도착(이스탄불 경유)</td><td>TK 1846
,TK90</td></tr>
<tr><td>출장성과</td><td colspan="6">○ 출장목적 달성 정도(출장 계획 대비)
- 출장계획서에 따른 활동 계획을 이행하여 출장목적을 충실하게 달성
- 제10차 OOC 개최 준비를 위한 Ocean Conservancy와 양자회담(4.16) 개최
○ 주요 성과
- 제9차 OOC 개최 규모 및 방식, 운영 준비사항 등 전반에 관한 자료 수집
- 제10차 OOC 개최 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 참여기관(정부기관, NGO, 기업 등) 의견 수렴 및 네트워크 구축</td></tr>
<tr><td>향후계획</td><td colspan="6">○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유관 기관 대상 제9차 OOC 전문 회람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제10차 OOC 개최시 아젠다 설정 및 사전준비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유 예정</td></tr>
<tr><td>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td><td colspan="6">- 1 -</td></tr>
</table>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발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제9차 OOC 개최행사 참석 / 4월 15일(월) 오후**
수행계획	**9th Our Ocean Conference 등록** - 참석자 : KMI 최지연 본부장 외 연구진 3명, 정부대표단
수행결과	**☐ 제9차 OOC 참석자 현장 등록** • 참석자 : KMI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김민 전문연구원
업무②	**제9차 OOC 기조강연(Keynote address) 및 본회의(Plenary Session) 참석Ⅰ / 4월 16일(화) 오전**
수행계획	• 기조강연(Keynote address) : Action to Save the Ocean 참석 - 참석자 : KMI 최지연 본부장 외 연구진 3명 • 본회의(Plenary session) Ⅰ·Ⅱ 참석 및 주요 논의사항 확인 - Plenary Session I: Greening of the shipping sector - Plenary Session II: Confronting Plastic Pollution - 참석 및 요약·정리 :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부대행사(Side event) 운영 및 컨퍼런스 구성 현황 조사 - 참여 및 조사: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해양수산부, 부산시 업무지원 - 김민 전문연구원
수행결과	**☐ 제9차 OOC 참석 (기조강연)** **[주요 참석자]** **○ 개회식 고위급 패널** - 그리스 외교부 장관, 그리스 에너지·환경부 장관, 미국 기후특사, UN 해양특사, 떠 환경해양 위원회 위원, 그리스 선주협회장, 미국 국무부 차관보 **[주요내용]** **○ 개회식 고위급 패널** - George Gerapetritis 그리스 외교부 장관은 해양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실질적 행동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장으로서 OOC-9의 개최 의의를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해양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임을 강조 - Theodoros Skylakakis 그리스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OOC-9를 통하여 해양 문제가 글로벌 정치 최상위 의제로 등극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 국제기구, NGO, 민간, 학계,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 John Kerry 미국 기후특사는 현재 해양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번 아테네 합의(Athens Consensus)가 향후 10년 동안 해양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Peter Thomson UN 해양특사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기후변화, 어업, MPA 설정,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더불어 OOC-9의 논의를 2025년 UNOC에서 충실히 이어갈 것을 언급
- Virginijus Sinkevicius EU 환경·해양 위원회 위원은 EU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한 MPA 지정 계획, WTO 수산보조금을 예시로 해양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바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 Melina Travlos 그리스 선주협회장은 그리스 해운 산업계의 탈탄소 노력을 강조
- Jennifer R. Littlejoh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해양 보호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해양보호 특히 BBNJ 협정, IUU 수산보조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OOC와 미국의 기여에 대해 언급

<그룹포토>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개최 선언>

□ **제9차 OOC 참석 (본회의 I - 해운 분야의 녹색화)**

[주요 참석자]

○ **본회의 발제 및 토론 패널**

- 그리스 해양·섬 정책부 장관, 유럽공동체 선주협회 회장, 그리스 선주협회 사무국장, IMO 법무 및 대외 관계부서 이사, 국제해운협회, 미국 국무부 기후담당 수석 부특사, 노르웨이 선주협회 회장 등

[주요내용]

○ **세션 및 공약 발표**

- Christos Stylianides 그리스 해양·섬 정책부 장관 등 패널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해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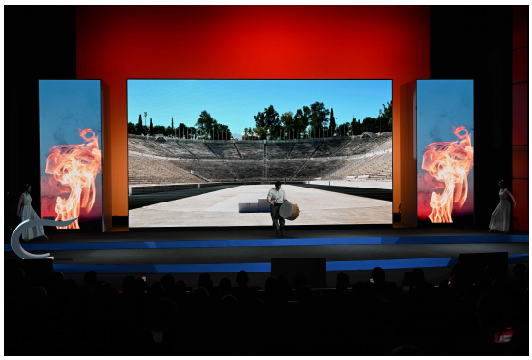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의 노력 즉, 해운산업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대체 연료 사용, 신규 선박 도입,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연계된 선원 인권 및 안전 보호에 대해서도 다룸 - (그리스) 해양 및 섬 정책부 장관은 △ 2025년 6월까지 환경족적(environmental footprint) 감소를 위하여 200여대의 여객 선단 교체, △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저탄소 선박 사용, 2030년까지 최소 12개 그리스 항만과 본토에 콜드 아이어닝(Cold Ironing) 설치 및 국제적으로는 청정에너지 해양 허브 이니셔티브(Clean Energy Marine Hub's Initiative) 참여할 것을 강조 - (EU 선주협회) 앞으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 - (그리스 선주협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 - (IMO)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MO와 176개 회원국은 규범 수립 및 국제협력 노력을 다할 것을 언급 - (국제선박위원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선원 인권 보호에 관한 노력 다할 것을 언급 - (미 국무부) 기후 부특사는 녹색 운송 회랑 확대를 위한 자금을 100만 달러 확대를 약속 - (노르웨이) 2030년 이전 탄소 발생을 50% 감축하고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언급 - (네덜란드) 2050 선박 탄소 배출 제로 선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억 달러를 배정하였고 향후 1억 1000만 달러 예산을 추가 배정할 것을 선언 - (몰타) 크루즈 선박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해안 전력 공급을 위한 3,300만 유로 이상을 투입하였고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 - (Laskaridis Shipping) 모든 선박의 수소 연료 전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2백 6십만 유로 예산 배정을 약속 **□ 제9차 OOC 참석 (본회의II - 플라스틱 오염 대응)** **[주요 참석자]** **○ 본회의 발제 및 토론 패널** - 유럽연합 해양수산위원, Athanasios C Laskaridis 재단 회장, UNEP 생태계부문 총괄,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환경부 장관, 영보이스 카메룬/아프리카 지역대표, Oceana 전략 이니셔티브 부서장, 라트비아 환경보호 및 지역개발부 장관 등 **[주요내용]** **○ 세션발제 및 공약 발표** - Susan Gardner UNEP 생태계 본부장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발전을 되돌아보면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가 지금부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하여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청중들부터 행동과 변화의 촉매가 될 것을 촉구 - (라트비아)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라트비아의 국내 정책을 언급하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환영함을 밝힘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 및 환경부 장관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생애주기에 따른 아랍에미리트의 국내 조치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2026년까지 플라스틱 일회용품 금지 예정 소식을 밝힘 - (그리스 Athanasios C. Laskaridis 자선재단)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 향후 5년간 그리스와 지중해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1000만 유로 투자 계획을 선언. - (아프리카/카메룬 지역 청소년 대표)는 카메룬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언급하며,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을 넘어선 모든 이해관계자의 해양오염 방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Oceana)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해양 위기를 언급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해결책으로 제시. 이를 위하여 코카콜라, 펩시와 같은 민간 영역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감소와 재사용 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 - (EU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이 발표한 35억 유로 공헌의 일환으로, EU는 △키프로스,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는 해양복원력시설에 9억 8천만 유로를 투입하고, 유럽의 해양디지털 트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주도 활동을 위하여 미션 오션에 7,700만 유로를 투입하고 △ EU와 프랑스는 세네갈 다카르에 있는 만의 해양생태계 복원 및 폐기물 수거 처리에 9,800만 유로의 자금 지원 약속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해양오염문제를 해결하고 군소도서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억 2,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 구체적으로 △ 해양 저산소위기(marine hypoxia crisis) 대응을 위한 1억 달러 투자 △ 자원 친화적 개발에 투자하고 군서도서개발도상국의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1억 2천만 달러 지원 △ 식음료 부문에서 순환 경제로의 국가 운송 전환을 지원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1억 800만 달러 지원임 - (터키) 2025년 말까지 모든 해양지역을 육상 기인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적시에 완료하고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 - (루마니아) 현재 루마니아는 총 6천만 유로 상당의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예방 및 감소를 목표로 5개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노력을 계속해갈 것을 약속 - (키프로스) 정부는 해변 입양 시행, 해양 청소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table>
<tr><td></td><td>
<OOC 회의장 전경>


<양자회담 회의>

<키노트 및 본회의 사진>

</td></tr>
<tr><td>업무③</td><td>제9차 OOC 키노트 및 본회의(Plenary Session) 참석Ⅱ / 4월 16일(화) 오후</td></tr>
<tr><td>수행계획</td><td>• 본회의(Plenary session) Ⅲ·Ⅳ 참석 및 주요 논의사항 확인
- Plenary Session III: Effective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 Plenary Session IV: Ocean – Climate Nexus
- 참석 및 요약·정리 :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키노트 및 High-Level Segment 참석
- 키노트 : 그리스 총리(Hyriakos Mitsotakis)
- 참석 및 요약·정리 :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td></tr>
</table>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부대행사(Side event) 운영 및 컨퍼런스 구성 현황 조사 - 참여 및 조사: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Ocean Conservancy 양자회의 참석 - 제10차 OOC 개최 준비 사항 질의 및 논의 - 참석 및 요약·정리 :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해양수산부, 부산시 업무지원 - 김민 전문연구원
수행결과	**□ 제9차 OOC 참석 (본회의Ⅲ -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주요 참석자]** **○ 본회의 토론 및 발제 패널** - Oceana 수석 고문, 프랑스 해양 및 생물다양성 국무장관, 미 기후특사, 스페인 제3부 통령 및 생태전환·인구통계학부 장관, 파푸아뉴기니 수산 및 해양자원부 장관, 자선가, 아메리카 진보센터 선임연구원 등 **[주요내용]** - Oceana 수석 고문 Alexandra Cousteau는 직접 목격한 과거의 바다와 거기에서 절반이 사라진 현재의 바다의 대비하며 잃어버린 풍요를 재건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John Kerry 전 장관은 지난 9회의 컨퍼런스가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냐는 모더레이터의 질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함. 지속가능성은 해양보호구역에만 의존하는 것이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개념이며, 지구상의 삶을 변화시켜야 함. - (스페인)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하는 약속이 나머지 해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모더레이터의 질문에 지식 공동체, 제도적 실천, 공론의 좋은 관계가 핵심이며, 해양이 단계적으로 사회의 지지를 받아 보호받도록 노력해야함을 강조함. - (프랑스) 30% 목표를 충족한 프랑스가 파괴적인 어업 행위 등으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모더레이터의 질문에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며, 공간별 허용 및 금지 활동을 결정할 예정이라 답함. 해양보호구역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처하고, 어업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략의 핵심 요소임. - (내셔널 지오그래픽)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하려면, 6년간 2억 달러, 더 큰 해양보호구역, 십만개의 연안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하며, 이는 하루에 40개씩 새로 지정되어야한다는 계산을 발표함. 어민들의 적은 보호구역이 아니라 남획이며, 그리스가 해양보호구역에서 저인망어업을 금지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지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을 기대함. - (파푸아뉴기니) 군소도서국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미미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해류에 의해 모이는 지역임. 우리의 행동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행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Dona Bertarelli 자선가)는 지금까지 15년간 해양보호구역에 투자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함을 강조함. 확대를 위해서는 BBNJ를 비준하고, 남극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내년 UNOC가 새로운 약속과 이행가능한 조치를 제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시할 것을 기대함.

- (아메리카 진보센터) 16년 전 미국은 마리아나 해구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음. 지난 4년간 바다의 0.1%를 보호했고, 이 추세라면 바다를 30% 보호하는데 880년이 걸릴 것임. 보전의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 중 인종차별 및 식민주의도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평해야 함.

□ 제9차 OOC 참석 (본회의Ⅳ - 기후 넥서스)

[주요 참석자]

○ 본회의 토론 및 발제 패널

- 로이터 편집장, 중국 천연자원부 차관, 미 기후특사, OECD 사무차장, 나우루공화국 기후변화 및 국가 회복력부 장관,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조직(환경 및 기후변화) 사무차장 등

[주요내용]

○ 세션발제 및 공약 발표

- John Kerry 특사 등의 패널들은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생산,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흡수 등 기후 조절에서의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과 해양을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대, 자연기반솔루션의 적용, 연안 위험지역에서의 회피, GCF(Green Climate Fund)와 같은 기후금융을 통한 취약국가 지원 확대와 소도서국에서의 금융 접근성 개선, EU를 포함한 다 그룹 및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 시민사회 및 커뮤니티의 참여 확대,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연계와 지식 지원을 강조.
-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건강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금보다 강력한 기후대응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및 부문, 기관을 아우르는 긴밀한 협력과 집단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 Ocean Conservancy 양자회의 참석

[참석자]

○ KMI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 전문연구원, 이상혁 전문연구원,
Ocean Conservancy Jeff Watters (Vice President), Anna-Marie Laura (Senior Director), Sandra Whitehouse (Consultant, Sheldon Whitehouse 의원의 부인)

[주요내용]

○ 개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 및 10회를 맞이하는 아워 오션 컨퍼런스의 아젠다와 일반적인 아워 오션 컨퍼런스 준비 사항을 질의 및 논의

○ (특별 세션) 여러 분야에 해양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오션'이라는 주제로 기업, 정부, NGO 등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을 구성하고자 함.

- 해양 계획에는 데이터, 정보, 지도 등이 사용되며,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마감한 후에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해상 풍력 등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오션 컨져번시는 계획과 데이터를 강조하는 '국가 해양 정책'을 12년 전 수립하였으며, 현재도 지역 계획가와 데이터 포털 운영 및 업데이트 등 긴밀하게 작업 중.

○ (한중일 협력) 아시아에서 해양쓰레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한중일 3국 선언 등을 구상 중

- 오션 컨져번시는 베트남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베트남은 육지에서 해양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임.

○ (해양시민포럼) KMI는 해양시민포럼을 주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며, 오션 컨져번시가 함께 하기를 희망함.

- 오션 컨져번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의사 있음.

○ (준비 조언) 본회의와 부대행사를 다른 시간에 배치하고, 적정 패널 수를 유지하고, 규모를 키우기보다 고위급과 주제에 집중하기를 추천함. 참가자들은 본회의가 영향력이 있으면 충분하니 모든 참가자에게 역할을 줄 필요는 없음.

- 이전 회의에서 모든 세션에 Youth 참가자가 1명씩 참석하여 Youth 회의의 결과를 소개하였음.
- 이 외에도 본회의 연사(오션 컨져번시 CEO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추천), 부대행사 등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약속.

□ 제9차 OOC 참석 (키노트 및 High-level segment Ⅰ)

[주요 참석자]

○ (키노트) 그리스 총리, (High-level segment) 미 기후특사, 팔라우 대통령, 도미니카 총리, 쿡 아일랜드 총리, 그레나다 총리, 동티모르 총리 등

[주요내용]

○ 키노트 주요 내용

- 그리스가 해양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을 강조하고, 해양보호가 단순히 환경적 필요성을 넘어 사회·경제·도덕적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 그리스는 지속적인 기온의 상승, 극한 기상의 심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해양으로의 악영향이 심화되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그리스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해양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요 영역으로, 이산화탄소 및 과도한 열의 흡수로 인해 해빙 감소, 해수온 상승, 생태계 전반에 대한 건강 악화를 야기함.
- 그리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감소, 석탄 에너지 사용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를 위한 노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 풍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의 개념이 아니라 해양의 보호와 복원에도 초점을 맞춰 자연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해양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연결성을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해양오염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목표설정 등 구체적인 약속이행의 중요성을 언급.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국가별 주요성과 및 현안**

- John Kerry 전 장관은 아워 오션 9회동안 100개 공약이 100억 달러 가치가 있다고 요약하고, 제9회 아워 오션을 위해 노력한 그리스에 감사함. 인류역사상 가장 더웠던 지난 1월과 2월을 언급하며 실행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우리의 노력이 마라톤이자 단거리임을 강조함.
- (팔라우) 해양보호구역 및 채취 금지 구역을 확대하였고, BBNJ를 비준하고, 기후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함을 역설함.
- (도미니카) 도미니카는 작년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쿡 아일랜드)쿡 아일랜드는 육지 면적은 작지만 해양 면적은 매우 크며, BBNJ 협정에 동의하였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계획을 발표하였음. 두려움보다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함.
- (그레나다) 그레나다는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고 야망있고 전지구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그레나다는 젊은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UNESCO-IOC와 함께 블루스쿨을 시작할 예정임.
- (동티모르)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 OOC(2018)에 참석했으며, 해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함. 해양공원, 해양 문해력, IUU 어업 근절, 플라스틱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국제 사회의 도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함.

<본회의 사진(토론)>

<본회의 사진(공략발표)>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업무④	**제9차 OOC High-Level Segment 및 본회의(Plenary Session) 참석Ⅲ / 4월 17일(수) 오전**
수행계획	• 키노트 및 High-Level Segment 참석 - 키노트 : 그리스 총리(Hyriakos Mitsotakis) - 참석 및 요약·정리 :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본회의(Plenary session) Ⅴ·Ⅵ 참석 및 주요 논의사항 확인 - Plenary Session V: Sustainable Tourism – Sustainable Blue Economy - Plenary Session VI: The Pathway to Innovative Maritime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ies - 참석 및 요약·정리 :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부대행사(Side event) 운영 및 컨퍼런스 구성 현황 조사 - 참여 및 조사: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 전문연구원
수행결과	**□ 제9차 OOC 참석 (High-level segment Ⅱ)** **[주요 참석자]** **○ High-Level Segment 대표 참석자** - 그리스 외교부 장관,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 카포베르데 외교협력 및 지역통합부 장관, 상투메프린시페 외교협력 및 공동체 장관 등 **[주요내용]** **○ 국가별 주요성과 및 현안** - 해양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한 고위급 패널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와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춤. 여러 국가의 외교부 장관들이 연사로 초청 및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자국의 정책 및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 - (그리스) 기후변화는 기후변화와 해양보호가 외교정책의 중심주제로,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기후 위기와 해양보호를 주요 이슈로 다룰 것임을 밝힘. 회의 기간 동안 400개 이상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언. - (코스타리카) 보다 크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관리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BBNJ조약 채택과 플라스틱 오염 조약 등 여러 다자간 협약의 중요성과 국립공원 확장 및 국내해양보호구역 증가, 해양·환경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메커니즘 등 관련 성과를 공유. - (방글라데시) 해양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14번 달성 등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출. 현재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해 참가하고 있음. - (카보베르데) 해양과 밀접한 국가로 해양이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데 핵심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라는 대의에 헌신하고 있음을 강조. 또한 해양을 중심으로 경제적 다각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중임을 강조. - (상투메프리시페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생계·경제·문화유산 등 수많은 방식으로 또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지속가능한 어업 방지를 위한 어업관리 관행 개선과 화석연료 플라스틱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해양오염 대응 입법 승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성과 공유.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제9차 OOC 참석 (본회의Ⅴ - 혁신적인 해양안보 발전 경로 및 신기술)**

[주요 참석자]

○ **본회의 토론 및 발제 패널**

- 유럽해상안전기구 이사, 해군사무국 수석고문, 그리스 디지털 거버넌스부 차관, 기니비시우 환경·생물다양성·기후협약부 장관, 가봉 교통·해운 및 해양환경부 장관, 가나 교통부 장관 등

[주요내용]

○ **세션발제 및 공약 발표**

- Konstantinos Kyranakis 그리스 디지털 거버넌스 차관 등은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 해적 위협, 천원 자원 경쟁, 사이버 공격 등으로 위협받는 해양안보를 자율운행선박, 센서 네트워크, 위성 원격 감지와 같은 신 기술을 통하여 보호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유럽 해사안전기구)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신 기술의 혁신적인 개발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연사는 유럽해사안전기구에서 인공지능, 지구관측, ARPA 시스템, ROV와 같은 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 설명. 해당 기술이 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식량 공급망 등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
- (가봉) 기니만에 위치한 가봉은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에 비해 자국에는 그러한 기술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해사 산업계는 가봉 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
- (그리스) 디지털 거버넌스부 차관은 그리스 정부는 해양 보호에 있어 지구 관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 바다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인공위성, 소형 및 초소형 위성 제조에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
- (기니) 비사우 환경·생태계·기후행동부 장관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광행을 장려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해옴.
- (가나) 교통부 장관은 기니만 내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역 내 국가들은 ECOWAS 시스템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역 내 합동 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힘.
- (미 해군 선임자문관)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해군이 해양연구에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 협력과 공동 행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강조.

□ **제9차 OOC 참석 (본회의Ⅵ - 지속가능한 관광-지속가능한 청색경제)**

[주요 참석자]

○ **본회의 토론 및 발제 패널**

- 그리스 관광부장관, Globla fund for Coral Reefs 창립자, 전 캘리포니아 환경부 장관, 버뮤다 부총리, 알바니아 관광 및 환경부 장관, 몰디브 기후변화·환경·에너지부 차관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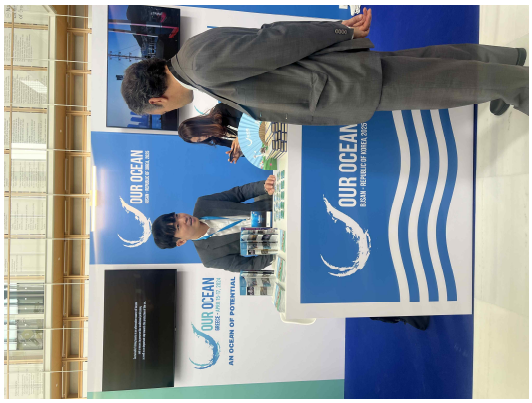
○ 세션발제 및 공약 발표

- 전 세계 관광의 약 50% 및 해양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해안관광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광 및 청색경제를 위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략 및 사례를 소개.
- 지속가능한 관광 및 청색경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단순한 해양자원의 이용·소모를 통한 경제활동이 아닌, 생산적이며 회복력 있는 생태계를 복원·보호 및 유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활동임을 시사.
- 지속가능한 관광 및 청색경제의 구성요소로 수산양식, 해양에서의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및 수중로봇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강조.
- 그리스는 크루즈를 포함한 해양관광 산업의 수요가 크고 그로 인한 압력이 큰 지역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 몰디브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 및 오염 감소를 위한 자연보호자금(그린택스)을 조성. 알바니아는 관광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관광과 환경을 하나에 부처에서 관리하며, 내륙이긴 하나 토지의 25%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

<부대행사>

<부대행사>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table>
<tr><td></td><td><홍보부스 운영>
  </td></tr>
<tr><td>업무⑤</td><td>제9차 OOC 본회의(Plenary Session) 참석Ⅳ / 4월 17일(수) 오후</td></tr>
<tr><td>수행계획</td><td>• 본회의(Plenary session) Ⅶ·Ⅷ 참석 및 주요 논의사항 확인
- Plenary Session VII: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 Plenary Session VIII: The Challenges & Solutions of the Mediterranean Countries
- 참석 및 논의사항 요약·정리 :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이상혁 전문연구원
• 부대행사(Side event) 운영 및 컨퍼런스 구성 현황 조사
- 참여 및 조사: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 전문연구원
• 해양수산부, 부산시 업무지원
- 김민 전문연구원
• 폐회 행사 참석
- 참석자 : KMI 최지연 본부장 외 연구진 3명, 정부대표단
•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 추진방향 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서진희 국제협력총괄과장외 2명, 부산시 김병기 해양수산국장외 2명, KMI 최지연 본부장 외 3명</td></tr>
<tr><td>수행결과</td><td>□ 제9차 OOC 참석 (본회의Ⅶ - 지속가능한 어업 촉진)
[주요 참석자]
○ 본회의 토론 및 발제 패널
- 그리스 농촌개발 식품부 장관, 덴마크 원양어업 생산조직 대표, 앙골라 수산해양자원부 장관, 독일 환경·자연보존·원자력안전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 유럽위원회 사무총장, 캐나다 수산해양부 차관 등

[주요내용]
○ 세션발제 및 공약 발표
- 지속가능한 어업 세션의 모더레이터는 세계경제포럼의 해양행동의제 책임자 Alfredo Giron가 맡음. 해양은 30억 인구에게 필수 단백질과 영양, 직장 등을 제공하고 있음. 약 8억 5천만 명이 해산물 감소로 영양학적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됨.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47%가 여성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어업은 형평성, 접근성, 경제발전, 식량 안보의 문제임.
- (그리스) 농촌개발식품부 장관은 그리스가 2024년 2월 크레타 섬에 수중 생물 생존을</td></tr>
</table>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위한 유럽 센터를 최초로 설립하였고, 폐기물 대책을 세우고, 청색 경제을 장려하고 있음을 언급함. (그리스어-영어 동시통역)

- (독일) 북해와 발트해에서 남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어족자원이 인간과 생태계에 근간임을 언급함. 독일은 북해 EEZ 보호구역에 트롤 어업을 제한하는 조치, 해양보호구역 내 어업을 금지지역 설정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독일은 새로 4억 2천만 유로를 투자하는 공약을 어제 발표하였으며, 법적구속력있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앙골라) 해양수산자원부 장관은 바다의 중요성과 인간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부각함.
- (캐나다) 캐나다는 해양 국가이며 법, 과학, 모니터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토착/비토착 주민과의 협력, IUU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함. RFMO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통합하고 있음을 강조함.
- (유럽위원회 해양수산국 사무총장) 유럽연합 회원국이 함께 어업에 관한 논의를 벌이고 어렵게 결정함을 강조함. 현재 수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미래 수산업을 위해 불가피하며 많은 국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U는 WTO의 과잉어획·과잉능력 금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기금으로 수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덴마크) 원양생산자조직 CEO이자 ICFA 이사회 회원은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바다의 역할은 UN과 FAO가 미래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과 보전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제9차 OOC 참석 (본회의Ⅷ - 지중해, 도전 및 해결방안)

[주요 참석자]

○ 본회의 토론 및 발제 패널

- 그리스 농촌개발 식품부 장관, 덴마크 원양어업 생산조직 대표, 앙골라 수산해양자원부 장관, 독일 환경·자연보존·원자력안전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 유럽위원회 사무총장, 캐나다 수산해양부 차관 등

[주요내용]

○ 세션발제 및 공약 발표

- 그리스 정부가 제안한 특별세션. 지중해에는 UNEP/MAP(Mediterranean Action Plan)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머지 바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함. 지중해는 오염, 특히 비점 오염과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문제가 심각함을 논의.
- (모나코) 지중해의 해양보호구역이 10% 미만이며, 기 지정된 곳의 2/3가 서부 지중해, 90% 이상이 EU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함을 지적함. MedFund는 지중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튀니지아, 모나코가 함께 만든 신탁기금임.
- (UNEP/MAP 코디네이터) 지중해가 세계 평균보다 20% 더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매일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730톤으로 추산되고, 1,000 종의 침입종과 감소하고 있는 작물 생산성의 문제를 지적함.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하며, 해양보호구역의 부족과 분포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음. 지중해는 활발한 해상운송으로 탄소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배출량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각 국가의 실행이 절실함을 호소함.

- (튀니지) 튀니지는 자국과 국제 사회의 자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발언함. 지중해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삼중 행성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에 위협받고 있음. 튀니지에는 4,000종 이상의 해양 종이 있으며 이는 지중해 생물종의 50%를 차지하며 지역 활동 센터를 두어 생물다양성 보호에 힘쓰고 있음. 튀니지는 모나코, 프랑스와 함께 신탁기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0개 이상의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 지중해의 삼중 행성 위기를 설명하며 슬로베니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특별법이 있음을 언급함.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이후 복구 중인데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지역 소득증대 등 기후에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으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채택하였음. 2023년 12월 채택한 포르토 로슈 장관 선언은 지중해에서 녹색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될 것임.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는 블루 지중해 파트너십(Blue Mediterranean Partnership)을 구축하는 국제 금융기관으로 2022년 위임받음. 이는 지중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중 기부자 및 다중 파트너 기관임. 현재 12명의 파트너가 있으며 정부, 은행 등이 포함됨.

- (몰타) 수산, 양식업 및 동물 권리 정무 차관은 지중해를 둘러싼 22개의 해안 국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2000년대 초반 참다랑어가 감소했지만 ICCAT을 통해 성공한 경험이 있음. 어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어부를 유입해야 함. 해결책은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있으며, 실행을 위해 협력, 대화가 필요함.

□ 폐행사 참석 (OOC 유산의 2025년 공식 이양과 고위급 패널)

[주요 참석자]

○ **2024 OOC 코디네이터, 카리브해 지역대표, 오리곤대학, 그리스 주재 판나마 공화국 대사, 팔라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사, 전 몰타 EU 집행위원, 칠래 외교부 환경·기후변화·해양국 국장, 미국 국무부 해양수산 및 극지 부차관,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장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차관 등**

[주요내용]

○ 그리스 총리 해양특사이자 OOC 2024 코디네이터는 OOC-9의 성과를 발표하고, Khadija Stewart 캐리비안 해 지역대표는 Youth를 위한 환경교육 글로벌 커리큘럼을 발표함. Kirsten Grorud-Colvert 오레곤 대학교 교수는 지난 8회의 OOC 공약을 추적한 결과, 72%가 달성하였고, 26%는 진행 중이며 2%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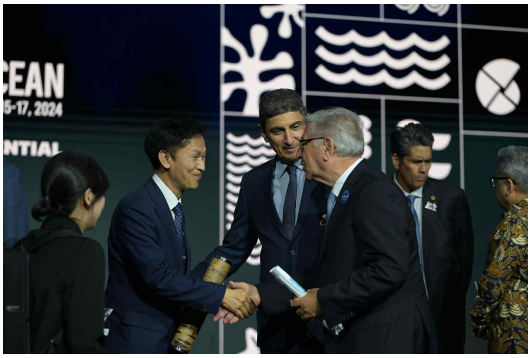
○ 이전에 OOC를 개최했던 파나마, 팔라우,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몰타, 칠레, 미국 대표가 패널로 나와 각 국가에서 OOC의 의의와 그 이후의 변화를 발표함.

○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제10차 OOC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상징물을 이양했으며, 송명달 차관은 내년 부산에서 Our Ocean, Our Action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의 슬로건으로 디지털 오션을 특별세션으로 하는 OOC를 개최한다고 공표함.

<폐회식>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폐회 리셉션 발언과 공연>

□ **제10차 아워 오션 기획방향(안) 협의 결과**

[주요 참석자]

- 서진희 국제협력총괄과장, 고준영사무관, 최지연 본부장, 김미주 박사, 이상혁 박사, 김민 박사

[주요내용]

1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성과와 경험 홍보

- 세계적으로 해양공간과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 통합거버넌스"의 선도적 이행 → 세계 주요국 벤치마킹
- 해양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 성과 홍보 → "Action"과 "Action의 성과", 6개 핵심의제별로 구성

① 글로벌 해양중추국가 이니셔티브 발표 | ② 핵심의제 패널 토론과 공약 | ③ 주제영상 | ④ 특별 행사 | ⑤ 전시부스

① 해양환경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②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운영

③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선진관리수단의 효과적 운영

④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⑤ 해양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행 (해양 탈탄소 전략)

⑥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⑦ 해양수산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⑧ 글로벌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의 적극적 확대

⑨ 해양 디지털 – 개방海, MEIS,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 수산자원정보시스템, 해양 디지털 트윈 R&D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2 글로벌 해양 이니셔티브 선도와 한국 해양협력 거버넌스 강화

- 주요 국제기구(UN 해양특사, IPCC 의장, FAO 등), 주요 해양국 국가정상 및 각료급, 글로벌 비정부 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 대표 등
- 한국 해양협력 거점 국가 정상(Global South) 및 각료급 초청 →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페루, 탄자니아, 태도국 등
- Global Influencer : K-Culture 대표 or 세계적 석학 or 해양환경 활동가 (세계중요어업재산(제주 해녀 등), 유네스코 갯벌유산 등)

① 개회식 특별 메시지와 고위급 패널 토론 ② 공동실천 협약(MOU) ③ 국가 정상회의 ④ 특별 행사 (만찬 등)

3 지난 10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10년간 Our Ocean Conference의 방향

- 지난 10년간 공약 실천 평가 실시 → 사무국 보고서 발간·발표와 주요 국가별 발표
- 고위급 패널 토론 프로그램 추가 → 존 케리의 특별 강연, 그간 개최국의 주요 성과 발표 (OOC 자문그룹)
- 특별 포럼 개최

① 특별 행사 개최 ② 개최국 특별만찬